(739)

조

주체 107
(2018)
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주체107(2018)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속에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한다고 하시면서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력사적장거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부문별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부문과 경제지도기관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부문별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시켜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침대로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케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케트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이라고,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시였다.

차 례

표지: 황금해의 력사 펼쳐지는 동해어장
사진 홍광남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나라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그 웅건장중한 뫼부리에 백설을 흩날리며 자기의 위대한 주인을 또다시 맞이한 기쁨으로 령묘한 정기를 내뿜고있었다.

산같이 쌓인 강설을 헤치시고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백두산은 눈보라치는 12월에 아직 그 누구도 올라와보지 못한 백두산정점에까지 오르신 그이앞에 만년장설을 이고 솟아있는 숭엄한 자태를 한껏 드러내며 엄동설한에 성산이 생겨 처음 보는 류달리 쾌청한 날씨를 펼치였다.

위대한 조선의 《11월대사변》을 이루시고 백두산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린다는 천지의 호심도 천기를 다스리는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감격을 간직하듯 거울처럼 맑고 푸른 물결에 기기묘묘한 령봉들과 눈부신 해빛을 비끼여안고 신비로운 황홀경을 펼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군봉마루에 거연히 서시여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순간도 굴함없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창공을 치뚫고 높이 솟은 아아한 절벽들과 눈부시게 아득한 천리수해를 이윽토록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가 깃들어있고 필승불패하는 조선의 정신적기둥이며 백절불굴하는 사상적힘의 뿌리인 백두성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만난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절세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흰눈덮인 12월에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새기신 뜻깊은 자욱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글 김태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대성공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준비를 끝낸 정형보고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11월 29일 새벽에 단행!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

김정은
2017. 11. 28

군수공업부

2017년 11월 28일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가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로케트기술준비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군수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에서 발사대 차체와 발동기, 대형다이야와 권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발사장에까지 나가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대륙간탄도로케트수직화를 비롯한 발사전 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고 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11월 29일 2시 48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이 눈부신 섬광속에 육중한 동체를 드러내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화성-15》형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제원과 동작믿음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은 최대정점고도 4 475㎞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시켰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이 확정되였다.

이로써 공화국은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케트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지난해 12월 1일 수도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가 진행되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축하하는 축포발사가 있었다.

전국의 도, 시, 군들에서도 군민련환대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평양에서 뜻깊은 나날들을 보내였다.

글 최광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주체의 혁명적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대회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지난해 12월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 무력기관 산하단위들에서 사업하는 당세포위원장들, 부문당위원장들,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또한 중앙과 도의 당책임일군들도 함께 등단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간고하고도 벅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력사에서 다섯번째로 되는 당세포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과 기층조직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세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당세포를 강화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세포중시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강화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주체의 당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온 긍지높은 나날이였다고 하면서 그는 당세포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들에서는 지난 5년간 당세포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신념의 결정체로, 당정책관철의 척후대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내재하고있거나 드러난 결함들이 정확히 분석총화되였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앞으로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옳은 투쟁방향을 바로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혁명이 끊임없이 전진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2월

밝혀주시였다.

당세포의 강화이자 우리 당의 강화이며 당세포의 역할이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모두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은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만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이번 대회의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출연자들과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축하공연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은 줄기차고 억센 향도의 힘으로 사회주의조선을 이끌어 강국의 새시대를 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여 진행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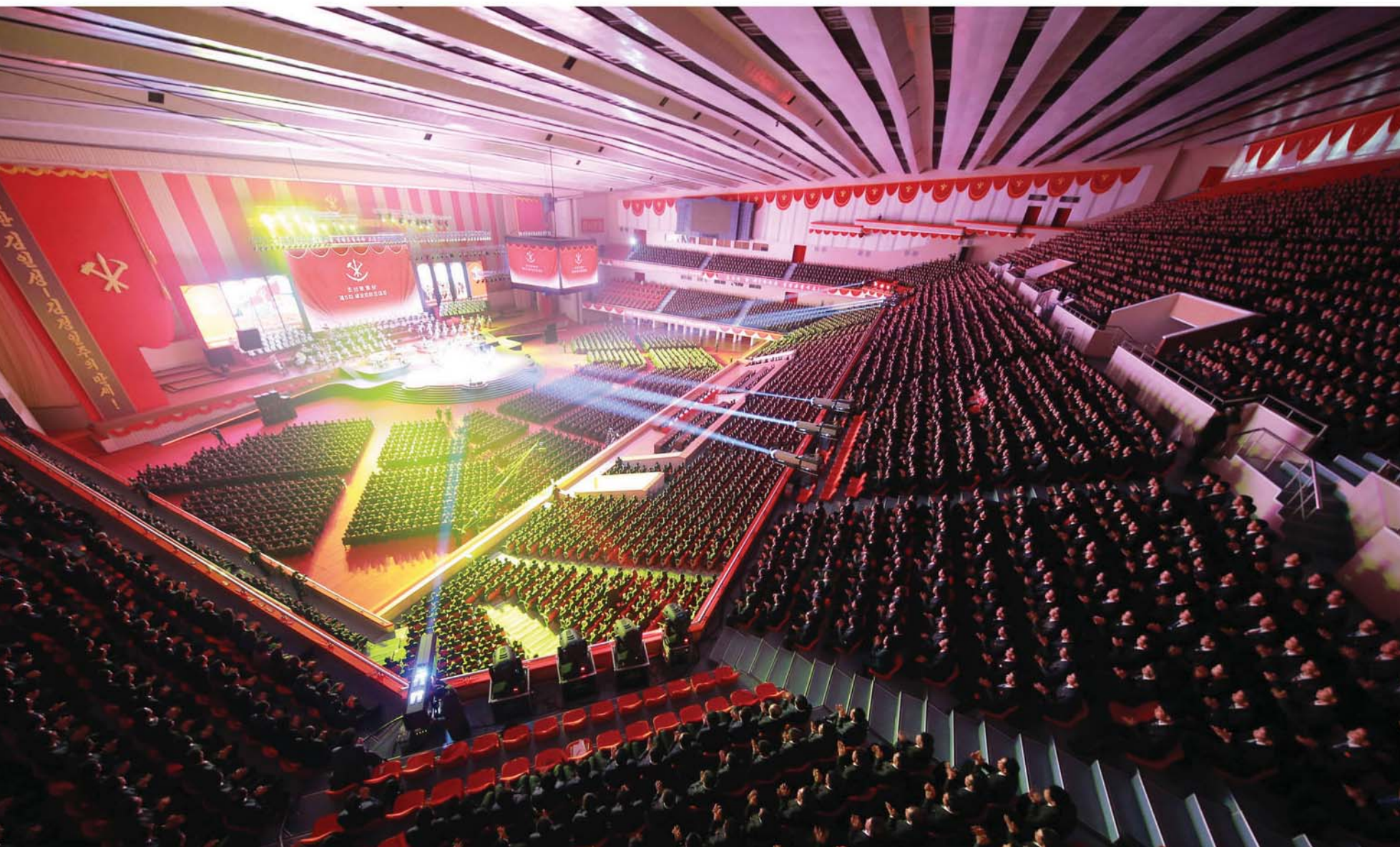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세포위원장들이 조선로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드리는 맹세문채택모임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으며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당건설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뜻깊은 대회합으로 조선로동당력사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글 김현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2월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청년역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2월

삼지연군을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전변시켜주시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삼지연군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종합조종실, 감자가루직장, 제품전시실, 문화후생시설, 과학기술보급실, 감자저장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이 공장에 여러가지 감자가공품생산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더 놓아 감자를 가지고 가루생산은 물론 영양쌀, 편튀기, 꽈배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특산물로 온 나라에 소문나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생산정상화의 불길속에 감자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지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된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삼지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운영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삼지연읍려관과 삼지연읍종합상점, 완공단계에 이른 삼지연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읍지구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총계획모형사판을 보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마음의 태를 묻고 사는 정신적고향인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군, 남들이 흉내조차 낼수 없는 특색있는 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군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잡도리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주체조선을 **김정일**조국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게 하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글 김정

건군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는 2월 8일

주체37(1948)년 2월 8일.

70년전 이날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주체형의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지축을 울리며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 그날의 무적의 열병대오의 장엄한 발걸음소리가 오늘도 조선인민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돌이켜보면 국력이 쇠진하여 황궁의 파수마저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겨야 하였고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 나라를 빼앗겨 자기 군대마저 강제해산당하는 피눈물의 비극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민족이였다.

그 인민이 자기를 지켜줄 강위력한 정규무력을 가지고싶었던 력사적숙망을 성취하도록 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1945. 8. 15.)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이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규적혁명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은 새 조선건설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조선인민군 열병대오를 사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2월

더우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가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무장침공을 계속 감행하고있는 당시의 긴장한 정세로 하여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시고 현대전쟁과 조선혁명의 임무에 맞게 주체적인 군사교육체계를 세우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정규적혁명무력의 핵심으로 될 수많은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도록 하시고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여 주체적국방공업의 창설로 정규무력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에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여러 군종, 병종과 자립적군수공업토대까지 다 갖춘 정규적무장력이 탄생할수 있었다.

하여 공화국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정규무력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그 존엄과 위용을 군사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끊임없이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서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초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조선인민군 해군군부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2월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수령의 군대, 조선로동당의 군대로, 사상과 신념의 강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억세게 다져짐으로써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였다.

오늘 영웅적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 군기로 높이 들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혁명적당군, 미제의 그 어떤 침략도 단호히 물리치는 주체전법과 강위력한 핵억제력, 현대적무장장비를 다 갖춘 최정예혁명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가는 조선인민군의 건군사와 더불어 2월 8일은 길이 빛날것이다.

글 김현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령장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도 일격에 쳐물리치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튼튼히 보위하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났다.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촬영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3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 출연한 배우들을 축하하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1(1972)년 12월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주시여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는 조선인민은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시대의 산물인 문학예술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며 발전한다.

1960년대말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자주시대의 문학예술,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문학론》과 《영화예술론》, 《가극예술에 대하여》와 《연극예술에 대하여》, 《음악예술론》, 《미술론》, 《무용예술론》, 《교예론》을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리론과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사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의 속도전에 관한 사상 등 심오하고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작방법, 창작지도체계를 확립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심한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이에 토대하여 만사람의 심금을 틀어잡는 명작들이 수많이 창작되고 《피바다》식혁명가극과 《성황당》식혁명연극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문학, 영화,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가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것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주체사상이 구현된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창조해낸 거창한 변혁이였으며 조선의 문학예술을 최고의 높이에 이끌어올린 위대한 혁명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15문학창작단,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보천보전자악단 등 문학예술기관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조직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을 뜨거운 동지적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내세워주시여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을 떠밀고나갈 힘있는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7(1978)년 6월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8(1979)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영화혁명이 일어난데 이어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불길이 타올라 《피바다》식혁명가극, 《성황당》식혁명연극들이 창조되였고 음악과 무용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력량으로 키우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작가, 예술인들의 일터를 자주 찾으시며 사업과 생활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맡은 과제를 더 잘 수행하도록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조선의 문학예술은 년대와 세기를 넘으며 시대와 대중을 선도하는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혁명적문학예술창조의 본보기단위로 되여 온 나라 인민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들과 **김일성**상계관작품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경희극 《산울림》 등은 오늘도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문학예술은 《혁명적예술의 본보기》, 《세계예술의 최고봉》으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열렬한 찬양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었으며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그 선도자적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것이다.

글 최광호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천만군민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새해 주체107(2018)년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뜻깊게 맞이한 새해 주체107(2018)년

수도 평양에서는 2018년 신년경축공연 《조선의 모습》이 진행되였다.

주체107(2018)년 설맞이공연을 앞두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홀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가 평양시의 여러곳에서 진행되였다.

새해를 맞으며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가 있었다.

평양얼음조각축전-2018이 있었다.

광휘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의 축포가 평양의 밤하늘에 터져올랐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동해어장에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

1월8일수산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과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으로 보장하는 수산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 인민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사업소는 창립된지 몇해 안되지만 수산부문의 맨 앞장에서 황금해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년간물고기잡이계획을 160%로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올해에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비롯한 물고기잡이준비를 예견성있게 빈틈없이 한데 맞게 출어일수를 최대로 늘여나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어장탐색과 어황예보, 생산지휘를 정보화하고 선단별, 고기배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물고기잡이를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단풍18-04》호를 비롯한 모든 고기배들이 사나운 풍랑을 헤치며 조선동해의 물고기어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집단적인 어로전과 분산적인 물고기잡이를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뜨랄과 건착을 비롯한 다양한 어로방법으로 기망회수를 부단히 늘여가며 많은 물고기를 퍼올리고있다.

하륙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사업소에서는 그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 고기배들의 부두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임으로써 만선회수를 늘이고 있다.

한편 쌍라선흐름식급동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랭동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잡아온 물고기들을 허실없이 제때에 가공처리하고 있다.

사업소에서 높이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그대로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되여 온 나라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의 원아들과 양로원 로인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배전에 넘치는 어로공들의 기쁨

사업소일군들은 과학적인 어장탐색을 앞세우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조직지휘한다.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

만리마의 기상을 안고 창조와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이 생산되고있다.

《천리마 316》형으로 불리우는 이 무궤도전차들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낳은 창조물이다.

지난 수십년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가지 형의 무궤도전차들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여온 공장에서는 새 세기 날로 변모되는 수도 평양의 웅장화려한 거리들에 어울리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목표를 내세웠다.

보기에도 좋고 편리성이 보장된 무궤도전차에 대한 설계를 앞세운 공장에서는 지난해 《천리마 316》형 대형무궤도전차를 개발한데 이어 지금 계렬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이 무궤도전차는 단거리를 달리는 려객운수용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였다.

공장에서는 경제적의의가 있는 축전지전차도 개발하였다.

사진 리명국 글 강수정

축전지전차도 개발하였다.

공장에서는 무궤도전차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질좋은 제품들이 생산된다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함흥편직공장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편직물생산기지의 하나이다.

최근년간의 현대화공사를 통하여 뜨개옷 및 양말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인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제직직장의 로동자들은 재권기, 대환기들을 비롯한 기대들의 기술적특성을 적극 살려 원료소비를 줄이면서도 많은 뜨개천을 생산하고있다.

염색직장, 재단직장의 로동자들도 현대적인 설비들이 만부하를 걸수있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염색의 질과 재단실수률을 높여나가고있다.

1, 2가공직장들에서는 제품들에 따르는 공정간 련계를 잘 맞물려 높은 생산실적을 내는것과 함께 생산물의 질평가기준을 부단히 높여 질좋은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하고있다.

이전에 비해 생산능력이 10배로 늘어난 양말직장에서도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기대마다 만부하의 동음이 힘있게 울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원료와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것과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누구나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지니고 기술혁신과 생산활동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오늘 함흥편직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최호

편직물생산을 위한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자들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편직제품들의 일부

한명의 학생을 위한 섬분교

주체89(2000)년 4월 1일 조선동해의 알섬에서는 개교식이 진행되였다.

소학교 학생 1명이 참가한 이 류다른 개교식이 진행된것은 외진 섬에 있는 등대원들의 자녀들이 불편을 모르고 마음껏 공부하도록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알섬에 분교가 세워져서였다.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소학교 알섬분교의 작은 교정에서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8년간 언제나 배움의 종소리가 울리였다.

나라에서는 1명의 학생을 위해 아담한 교사를 지어주고 교구비품들과 교육기자재들, 교과서와 학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것을 보장해주고 교원도 보내주었다.

첫 개교식날 알섬분교의 교단에 선 김순옥교원은 오늘까지 등대원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오고있다.

외진 섬의 등대원자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뿌리가 되려는 마음을 안고 등대원과 가정을 이룬 그는 분교의 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다.

몇명 안되는 등대원들이 있는 섬이여서 분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수는 1～2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분교에서는 뭍에 있는 학교들에서처럼 소학교전과정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과외소조도 운영되여 학생들은 소질과 취미에 따르는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다.

지금까지 분교에서는 8명의 학생들이 소학교과정을 마치였는데 그들중에서는 중학교시절에 전국다과목학과경연 순위권입상자도 나오고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도 나왔다.

오늘도 분교에서는 1명의 학생이 공부하고있다.

배움의 종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알섬분교의 교정은 크지 않아도 여기서 조국의 미래가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사진 김윤혁 글 강수일

조선민족의 전통음식-김치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식물의 하나인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음식-김치.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김치를 담그어 먹었는데 금같이 귀한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금채》라고 하다가 점차 그 말이 김치로 굳어졌다고 전해지고있다.

배추, 무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류와 산나물에 양념감과 젓갈 등을 섞어 젖산발효시킨 남새가공품인 김치는 종류만 하여도 수십가지인데 어느때 만들어 먹는가에 따라 봄김치, 여름김치, 가을김치, 겨울김치로 나누어진다.

계절별로 나는 여러가지 남새들로 김치를 만들어 먹는 풍습은 겨울나이를 위해 김치를 담그는 11월의 김장철에 류다른 풍경을 낳는다.

이철에 가정주부들은 온갖 정성과 품을 들여 통배추로 초절임을 하고 양념소를 묻혀 만드는 통배추김치를 위주로 하면서 통무우에 국물을 해붓고 익히는 동치미 그리고 깍두기 등 여러가지 김치들을 맛있게 담그기에 여념이 없다. 손맛과 넣는 양념소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김치의 고유한 맛과 향기는 변함이 없다.

김치는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일뿐아니라 그 영양학적가치로 하여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에 이르는 기간에 비타민 C의 중요한 공급원천인 통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는 조선사람들속에서 대표적인 부식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에서는 류경김치공장을 비롯한 김치공장들에서 공업적방법으로 맛좋고 질좋은 김치들을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다.

김치를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기 위해 경연도 자주 진행하고있다.

지난해에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수도 평양의 려명거리 료리축전장에서 평양시안의 봉사단위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이 진행되였다.

경연은 인민봉사총국부문과 성, 중앙기관부문, 평양시사회급양부문, 가정주부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초절임과 양념소만들기 및 담그기에 대한 가공심사와 지정된 기간안에 잘 익혀 완성한 통배추김치의 맛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경연은 날로 향상되는 음식문화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었으며 참가자들의 열의와 가공기술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경연에서는 옥류관, 청류관, 경흥지도국, 만경대구역종합식당의 료리사들과 만경대구역에서 선발된 가정주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진 김설희 글 강수정

오늘 조선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에서의 김치담그기와 함께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김치가 있어 사계절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되고있다.

조선료리협회에서 조직하는 김치경연이 해마다 진행되고있다.

률동체조, 탁구, 롱구, 배구를 비롯한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는 종업원들

높아가는 체육열풍

최근 과학기술전당 종업원들의 대중체육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과학기술전당은 창립된지 얼마 안되지만 이곳 종업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하고있다.

종업원들 대다수가 연구사들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전당에서는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는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곳에서는 구내에 훌륭히 꾸려진 배구장, 탁구장, 정구장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운동과 체육경기들에 적극 참가하도록 장려하고있다.

경기를 하나 조직하여도 진취적이고 승벽심이 강한 지식인들의 특성에 맞게 실력에 따라 부류를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써 누구나 체육사업에 참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세우고있다.

하여 처음에는 취미가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군 하던 체육장으로 날이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다.

여가시간은 물론 일요일에도 탁구장과 배구장, 정구장은 비여있을새가 없다.

종업원들의 체육기술이 몰라보게 발전하여 지난해에 진행된 제22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에서 과학기술전당은 여러 종목에 출전하여 4개의 종목에서 1등, 3개 종목에서 2등, 2개 종목에서 3등을 하여 종합 2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대중체육열의가 높아지자 집단의 분위기도 한결 달라져가고있다.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사업성과도 부쩍 올라갔으며 기관안에는 언제나 랑만과 정서가 차넘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열띤 응원은 선수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대회3련승을 기록한 녀자축구선수들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사진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조선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은 중국팀을 2:0으로 물리치고 남조선팀을 1:0으로, 일본팀을 2:0으로 타승함으로써 또다시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하여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은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대회3련승을 기록하였다.

경기응원자들을 비롯한 관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고 있는 조선녀자축구선수들

2017년 동아시아축구련맹 E-1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 최우수방어수상, 최우수문지기상을 수여받은 선수들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펴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881114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2월의 소백수 사진 변찬우